

한일관 대표 사망 '목줄없는 개' 공포...안이한 대처 여전

대형 음식점 '한일관'의 대표 김모(여)씨가 그를 '슈퍼주니어' 멤버 최시원씨 가족 반려견에 물려 패혈증으로 사망했다.

21일 연에게 등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30일 이웃이 기르는 개에 정강이를 물렸다. 이후 김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옛새 만에 패혈증으로 숨졌다.

해당 개의 주인은 최씨 가족이었다. 개는 최씨 집 현관문이 잠시 열린 틈에 빠져나와 김씨를 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일부 언론에 공개된 당시 아파트 엘리베이터 폐쇄회로(CC)TV 장면을 살펴보면 최씨 가족이 키우는 개에게 목줄이 없었고 입마개가 채워지지 않은 상태였다.

다만 김씨 사망이 치료 과정에서의 문제나 2차 감염 등의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다. 김씨를 문 반려견은 프렌치불도그다.

한국애견연맹(KKF) 등에 따르면 불도그는 14세기 영국에서 소를 잡는 데 쓰인 투견인 것으로 알려졌다. 프렌치불도그는 영국에서 프랑스로 수출, 대륙의 여러 품종과 교배시켜 만들어진 종이다.

프렌치불도그는 2014년부터 KKF 견종 등록 순위가 꾸준히 상승해 지난해 3위를 차지할 정도로 국내에서 인기가 높다. 키 30cm에 체중

최시원 가족 반려견에 물린 유명 식당 대표 사망 안전장치 미착용으로 '개물림' 사고 계속 발생 해외처럼 허가제·면허제 등 규정 마련 목소리

10~13kg의 이따한 체구로 표정이 호전적이지만 친절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번 사건이 알려지자 반려견 관리에 주의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내가 기르는 개는 사람을 물지 않는다'라는 생각에 목줄이나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지 않을 경우 이같은 사고는 또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반려견에 의해 목숨을 잃은 사건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지난 9월에는 경기도 수원에서 1살이었던 A양이 집에서 기르던 개에게 목 부위를 한 차례 물려 사망했다. 지난달 4일에는 충남 태안에서 70대 여성이 목줄이 풀린 진돗개에 물려 숨졌다.

목숨을 잃지는 않았지만 개에 물려 큰 부상을 당한 사례도 적지 않다.

지난달 13일에는 대구 수성구에서 산책을 하던 80대 노인이 이웃주민의 대형 반려견에 물려 부상을 입고 패혈증 증세를 보였다. 목줄은

매어져 있었지만 입마개는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 8월14일에는 부산에서 70대 노인이 목줄이 없는 대형견에게 물려 발목과 무릎에 상처를 입었다. 7월24일에는 충남 홍성에서 목줄 없는 개가 주민 2명을 습격해 상처를 입히기도 했다.

동물보호법 등에 따르면 목줄이나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지 않은 반려견을 데리고 공공장소에 나오는 것은 위법 행위다.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된다.

또 소유주가 등록대상인 동물을 데리고 외출할 때 목줄 등 안전장치를 해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서는 목줄 길이를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나 혐오감을 주지 않는 범위'로 규정하고 있다. 반려동물 소유주에게 반려동물 관리의 책임을 지게하는 것이다.

그러나 안전장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견주들이 입건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

지난달 18일에는 전북 고창에서 산책 중인 40대 부부를 물어 다치게



한 대형견 주인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40대 부부는 산책로에서 4마리의 대형견에게 물려 5주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부상을 당했다. 경찰은 부부의 부상 정도가 심하고 견주의 과실이 크다고 판단했다. 지난달 20일에는 인천 부평구에

서 목줄을 하지 않은 채 있던 개가 행인을 물어 전치 6주의 중상을 입었다. 견주는 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일각에서는 반복되는 '개물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국내에는 맹견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맹견을 소유할 시 법원의 허가를 의무화한 영국이나 면허제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 등 해외 사례처럼 관련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개 물림사고 예방책 붓물...가슴줄·입마개·펫택시 등



반려동물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 업체의 광고.



시중에서 판매되는 애견짚음방지 모델.

유명 한식당 '한일관'의 대표 김모(53·여)씨가 그를 '슈퍼주니어' 멤버 최시원씨 가족 반려견에 물려 패혈증으로 사망한 가운데 반려견이 유발하는 갈등을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는 요구가 붓물을 이루고 있다.

사고 소식이 전해진 지난 20일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동물보호법의 보완과 처벌강화를 요청하는 청원이 잇따르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대부분의 견주들은 반려견에 목

줄을 채우지 않은 채 외출을 한다. 목줄을 잡아당길 때마다 반려견이 스트레스를 받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동물학대로까지 인식하는 경우도 있다. 전문가들도 목줄은 반려견에 적잖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지적한다.

개의 목과 경추의 경우 몸 전체로 이어지는 척수가 있고 앞발의 신경이 시작하는 곳이기도 하다. 장기를 조절해주는 신경이 흐른다. 몸의 신진대사를 조절하는 갑상선

도 목에 위치해 있다. 반려견을 자주 목줄로 당기면 갑상선이 심각한 충격을 받게 되고 심한 경우 예민해지거나, 체중 증가, 털 빠짐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목줄이 머리로 흐르는 피와 림프의 흐름을 막고 앞발로 흐르는 신경을 방해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앞발을 절뚝거리거나 발바닥을 핏물이 이상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심각한 목뼈 부상에 시달릴 수도 있다.

이같은 이유로 목줄(칼라) 대신

상대적으로 목에 부담이 없는 가슴줄(하네스)을 대안으로 권장하기도 한다.

마찬가지로 반려견에 대한 '입마개'도 갈등을 줄일 방책이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권장한다. 특히 위협적인 반려견일수록 입마개는 화제가 아니라 사고를 예방하고 교육을 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는 것이다.

반려견 행동전문가 강형욱씨는 자신의 홈페이지에 게재한 칼럼에

목줄 대신 가슴줄 착용, 입마개 적응훈련 철저 자주 짚어낼 경우 진동 또는 스프레이로 경고

서 "어떤 사람이든 공격하려고 달려드는 반려견을 보면 피하거나 놀라기 마련"이라며 "하지만 위협적인 행동으로 상황을 대처했던 반려견은 스트레스가 약간이라도 풀리게 되면 앞으로는 위협적인 행동으로 상황을 모면할 수 있다고 학습 공격적인 행동은 더욱 강화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제가 생겼을 때 이빨을

사용하는 것으로 해결해왔고 이런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문제를 해결했다면 그 반려견은 공격적으로 될 것"이라며 "모든 반려견에 입마개 적응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짚은 '짚음'으로 인한 사고나 민원이 잦아지면서 애견짚음방지기도 다양하게 활용되는 추세다.

반려견이 짚을 때마다 견주가 물리적인 처벌이나 고통을 가하기보다는 반려견에 목걸이 형태의 센서를 부착시켜 짚을 때마다 진동

울리도록 한다. 진동 대신 반려견의 건강에 무해한 향기를 내뿜도록 분사식 스프레이도 있다. 반려견과 외출 시 지하철, 버스 등과 같은 대중교통 수단 대신 애견 전용 택시를 이용하기도 한다. 이른바 '펫택시' 서비스다. 많은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하면서 물림사고에 대비할 수 있고 애원견에 거부감을 갖거나 알레르기가 있는 사

람들의 불쾌감도 덜어줄 수 있다. 미국이나 영국 등에는 펫택시 서비스가 보편화됐으며 우리나라는 1년 전부터 펫택시 서비스가 도입됐다. 현재 서울 강남에만 10여개 업체가 영업 중이다.

요금은 일반 택시보다 다소 비싼 편이다. 대부분 펫택시 업체의 기본 요금은 8000원~1만원 안팎으로 일반 택시처럼 미터기 앱을 사용해 요금을 추가로 과금하는 편이다. 대신 택시 안에 대면패드 등 등을 항상 비치하고 수시로 청소하며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펫택시를 선호하는 견주들이 점점 늘고 있다.

지방에서 펫택시 서비스 업체를 운영하는 성모씨는 "현행법상 애원견을 데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땐 케이지에 가둬야 하는데 견주들은 반려견을 자식처럼 여기기 때문에 케이지 안에 반려견이 갇히는 걸 싫어한다"며 "차라리 돈을 더 주고라도 택시를 타겠다는 견주가 많다. 앞으로 갈수록 펫택시에 대한 서비스 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부풀리고 조작된 가짜뉴스는 사라져야 합니다

가짜뉴스가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자극적이거나 의심스러운 뉴스는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한번 더 검증해보는 현명함으로
가짜뉴스를 근절시켜 정직하고 바른사회를 만들어 갑시다.

